



선거방송은 SBS

글. 정준환 SBS A&T 보도영상본부 보도기술팀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을 뽑은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었다. 선거 전부터 특정 후보의 우열을 가릴 수 없었고 새벽 4시경 개표율이 98% 넘어서 당선인이 확정될 때까지 초접전으로 진행되었다. 다른 의미로 방송 스텝들은 선거방송 시작부터 끝까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하여 긴장을 늦출 수 없었으며 확정 결과가 늦어질수록 선거방송 시간도 길어졌다.

선거방송은 하루, 준비기간은 6개월?

당선을 위해 경선부터 공식 선거 운동까지 온 힘을 다하는 후보자들처럼 방송국들도 선거방송을 준비하기 위한 레이스에 시동을 건다. 방송사별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치열한 눈치싸움의 시작인 것이다. ‘새봄, 희망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준비한 ‘SBS 2022 국민의 선택’은 대통령 선거를 6개월여 앞둔 21년 8월부터 시작되었다. 보도국의 기획으로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는 VIPON(Vote Information Processing Online Network, 실시간 개표 정보 그래픽) 작업부터 첫 스타트를 끊었다. 12월에는 선거방송 유관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TF 체제로 선거방송 준비에 돌입했다. 모든 방송이 그렇듯 선거방송 또한 여러 부서가 한 팀으로 구성되어 준비하지만 그 규모는 가장 크다. 시청자들에게 딱딱하게 다가갈 수 있는 선거를 보다 보기 쉽고 흥미로운 방송으로 제작하기 위해 정확히 이가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들처럼 유관부서들이 원팀으로 협업하게 된다.

21년 12월, TF 구성 후 첫 미팅에서 이번 선거방송의 콘셉트를 전달하고 기획 및 구성에 대한 회의를 여러 차례 반복하며 각 부서 간 진행 사항을 체크한다. 본격적인 방송 준비는 선거 약 한 달 전 세트 공사를 시작으로 선거방송 체계로 전환되고 선거방송 약 10일 전부터는 최종 리허설 단계에 돌입한다. 모든 리허설이 중요하겠지만 이때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코너는 출구조사 결과 발표이다. 모든 시청자와 선거 관련 인원들의 이목이 집중될 뿐더러 한 번에 정확히 정해진 시간에 약속된 방송을 임팩트 있게 진행하고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리허설을 진행한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의 결과 발표가 본격적인 선거방송의 시작이다.

SBS 선거방송 제작의 주요 부서와 역할

- 보도국 : 선거방송 기획 및 제작 총괄
- 미디어기술기획팀 : 개표 방송 장비 구성 및 기술 지원
- 미디어기술연구소, 미디어IT팀 : VIPON, 미디어 월 그래픽 등 투/개표 데이터 연동
- 보도기술팀, 제작기술팀 : 선거방송 STUDIO 제작 진행
- 중계기술팀 : 선거 당일 각 후보 및 당사 현장 중계차 진행
- 영상취재팀 : 주요 포인트별 현장 연결 담당
- 영상편집팀 : 영상구성 담당
- 뉴스디자인팀 : VIPON 디자인 및 선거방송 CG 제작 총괄
- 영상제작 1팀 : 선거방송 STUDIO 카메라 구성 담당
- 아트 1팀 : 방송 세트 디자인 및 제작
- 아트 3팀 : 각 스튜디오 조명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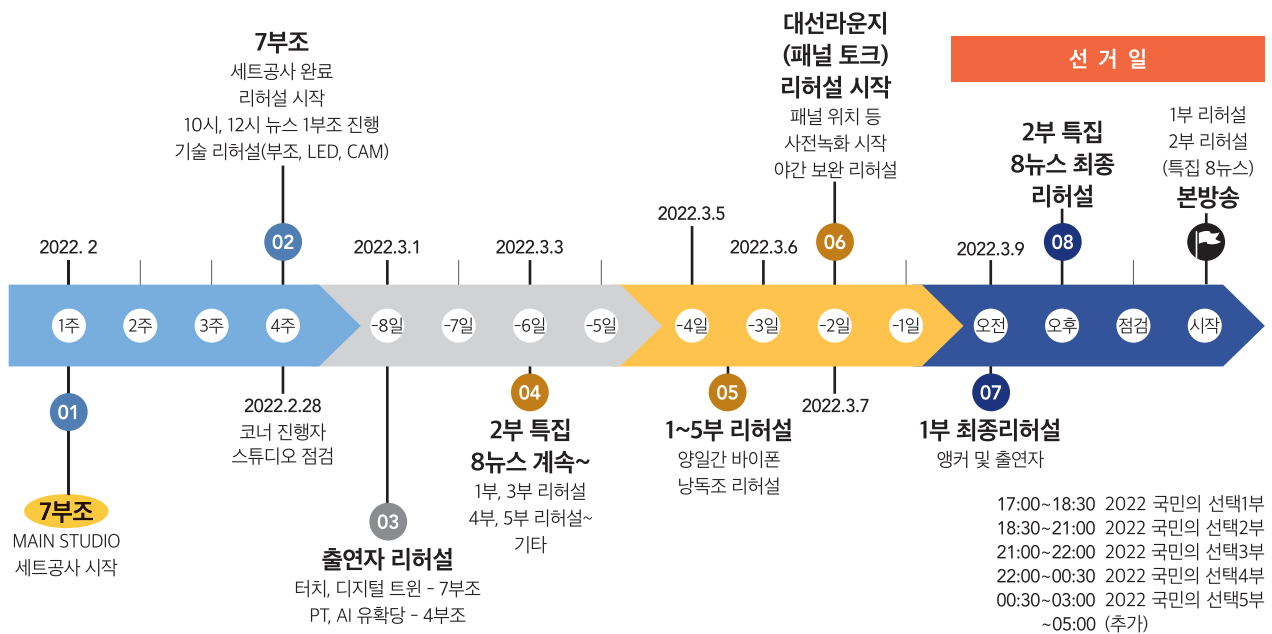


그림 1. 2022 국민의 선택 리허설 일정

3개 부조가 하나로 움직이는 빅 이벤트

선거방송은 SBS의 빅 이벤트 중 여러 부조가 동시 연결되어 방송되는 유일한 프로그램으로 3개의 부조가 구성에 맞게 유기적으로 진행된다. 평소 제작 성격이 다른 부조들이 하나로 모여 각자의 장점을 더해 시너지를 만들어 낸다. 각각의 스튜디오 신호가 마스터 부조로 모두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2개의 서브 부조에서 제작되는 신호를 마스터 부조로 전송하여 제작한다. 선거방송 준비기간 동안 각 부조 연결에 대한 준비 작업은 크게 비디오·오디오 타이라인 구성, 인터컴 구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비디오·오디오 타이라인 구성의 경우 3개의 부조에서 동시에 생방송을 진행하기 위해 서브 부조의 신호를 마스터 부조로 모두 모아야 하고 부조별로 필요한 신호를 서로 주고받으며 모니터링하기 위해 타이라인을 구성하다 보면 기계실 패치 패널 구성은 마치 거미줄처럼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진행 스튜디오가 3개로 분할되어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 안에서 효율적인 구성을 위해 각 부조 관리 담당자 간의 유기적인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오디오의 경우 마스터 부조(4부조)와 1서브 부조(7부조) 간 디지털 타이라인은 메인 콘솔과 서브 콘솔을 포함하여 총 11라인이 사용되었으며 7부조에서 4부조로 보내는 신호는 4부조에서 다시 분배기를 거쳐 2배수로 나누어지고 나누어진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는 메인 콘솔과 서브 콘솔 인풋으로 수용했다.

	용도	평상시	2022 국민의 선택
4부조	제 1뉴스센터	모닝와이드, 10·12시 뉴스, 8시 뉴스, 나이트라인	선거방송 진행 마스터 부조, VIPON 진행, AI 유확당·대선라운지 진행
1부조	제 2뉴스센터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뉴스	낭독조 진행
7부조	제작 부조	예능, 교양프로 제작	메인 앵커 진행 스튜디오, 디지털 트윈, 터치스크린 진행

표 1. 부조별 진행 내용

2월 초 7부조의 메인 세트 건축에 돌입하여 약 한 달 동안 세트를 완공하고 2월 28일부터 메인 부조가 되는 제 1뉴스센터의 오전 뉴스를 제 2뉴스센터로 이관하여 본격적인 리허설을 시작하였다. 세트를 짓는 7부조는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가 없어 세트 공사 기간에 선거방송만을 준비하였다. 반면 현업을 중단하고 준비를 할 수가 없는 2곳의 뉴스센터는 선거방송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뉴스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현업과 선거방송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부조는 선거를 준비하는 기간 중 뉴스 생방을 제외한 시간 동안 시스템 구성 및 리허설을 진행하고, 스튜디오는 뉴스 진행 공간을 나눠 세트 공사를 병행하였다. 특히 마스터 부조로 사용되는 4부조의 경우 오후 리허설 종료 후 '8뉴스' 생방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방송 시스템에서 평상시 뉴스 생방송 시스템으로 정확한 절체가 중요했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메인 뉴스 진행 중 방송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7부조는 평소 제작기술팀에서 관리하는 부조로 예능 및 교양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된다. 이번 선거방송에서는 서브 부조 1로 스튜디오 3면을 모두 LED 세트로 제작하여 메인 앵커들이 진행한 LED 월, 어항 LED, 디지털 트윈, 터치스크린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LED 세트의 최고 높이는 6m, 가로 합산 길이는 36m로 LED 패넬(500×500mm) 739개가 사용되었다.

메인 앵커들이 진행한 메인 LED 월은 개표가 진행됨에 따라 나무가 자라나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국민의 바람을 담은 희망 나무가 싹을 틔어 푸르게 자라나는 모습으로 이번 2022 국민의 선택의 슬로건인 '새봄, 희망 대한민국'을 표현하였고 현장 중계 화면을 띄워 중계의 생동감을 전했다. 우측의 터치 LED는 터치스크린 TV와 연동하여 선거 판세, 지난 선거와의 비교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표출하였다.

이번 LED 월 중 제일은 어항(Fish bowl) LED로 Wave 영상으로 유명한 코엑스 SM 타운의 옥외 사이니지 전광판의 모습을 담은 LED 월을 스튜디오에 도입하여 자연스러운 90도 곡률을 만들어 3차원적으로 구성, 후보자들의 캐릭터를 생동감 있고 익살스럽게 표현하여 마치 튀어나오는 것 같은 시각효과를 만들었다. 또한 어항 LED의 넓은 면에서는 디지털 트윈(현실 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가상세계로 구현하는 것)을 구현하여 실시간 투/개표 현황을 '선거 가상세계'로 표현하였다. 실제 세계의 선관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 변환하여 데이터를 연동하고 그것을 3D 가상세계로 구현, 진행자의 태블릿을 통해 시점 이동, 분석 메뉴 선택, 지역 선택 등을 직접 조작하는 형태로 방송을 진행하였다.

그림 2. 7부조 LED 월 전경





그림 3. 어항(Fish bowl) LED



그림 4. 터치스크린 진행



그림 5. Digital Twin



그림 6. 낭독조 진행

서브 부조2로 사용된 1부조는 제 2뉴스센터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뉴스’ 등을 제작하는 UHD 부조이다. 이번 선거방송에서는 낭독조 부조로 사용되었는데 낭독조는 VIPON을 보다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계속 변화되는 실시간 투/개표 데이터 그래픽에 아나운서들의 목소리를 더하여 줬다. 남, 여 아나운서 한 조씩 이루어져 기획한 VIPON의 콘셉트에 맞게 다양한 버전으로 데이터를 표현하여 마지막까지 박빙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의 긴장감을 더하였다.

마스터 부조로 사용된 4부조는 제 1뉴스센터로 ‘모닝와이드’, ‘8뉴스’ 등을 제작하는 메인 뉴스센터이다. 스튜디오는 선거 판세에 대한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뤄진 ‘대선라운지’와 당선 확률을 SBS 자체 예측 시스템으로 분석해 미디어 월로 표현한 ‘AI 유확당’으로 사용하고 부조에선 1, 7부조의 신호를 받아 VIPON, 현장 중계 신호, 4스튜디오 신호 등을 더하여 전체적인 선거 방송 진행을 총괄, 주조로 보내는 최종 신호를 제작하였다. 평상시 뉴스 진행을 위한 시스템과 별개로 VIPON 장비(CG 송출 장비, 데이터 연동 장비 등) 및 개표 방송 진행 데스크, 현장 중계 모니터 및 코디 데스크 등을 선거방송을 위해 추가 설치하였다. VIPON 및 하단 자막 MIX 장비와 운영석의 경우 4부조 공간이 모자라 부조 옆 복도에 자리를 잡았다.

현장 중계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 집 앞, 당사 등 선거 POOL단 포함 약 50여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실제로 방송에 구성된 F/S(frame synchronization)는 5개로 방송 상황에 맞춰 계속해서 연결을 바꿔가며 사용하였다. 3개 부조에서의 진행 사항 및 중계 현장의 상황까지 모두 체크해야 하므로 선거방송 시작부터 끝까지 한시도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었다.



그림 7. 대선 라운지



그림 8. AI 유헌당



그림 9. 4부조 전경 1



그림 10. 4부조 전경 2



그림 11. 고요의 시간

VIPON 맛집! SBS

개표 방송의 퀄리티가 데이터를 통한 정확한 선거 판세 분석과 당선 확률 예측에 있다면 개표 방송의 재미는 실시간 투/개표 정보를 그래픽으로 표현한 VIPON을 얼마나 시청자가 보기 쉽고 편하게 이끌어내는데 있다. SBS는 2012년 선거방송부터 자체 제작한 VIPON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재미와 재치를 넘어 스토리텔링까지 담아 표현하고 있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은('권좌를 찾아서', 왕좌의 게임 패러디로 유명) 외신들에게 호평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제51회 휴스턴 국제 필름 페스티벌에서 수상할 정도로 유명세를 탔다. 이번 선거방송에서도 다양한 VIPON이 사용되었는데 사막에서 대선주자들의 거친 레이스를 표현한 '질주자들 : 청와대로 간다', 캠프에서의 휴식과 밤의 묘미인 불멍을 표현한 '고요의 시간', 수어로 승패의 표정을 살린 '손으로 전해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종목을 패러디한 '내일은 국가대표', 후보들이 디스코 광장에서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는 '돌아라 광광' 등을 제작하였다. 특히 '질주자들 : 청와대로 간다'는 인기 걸그룹인 aespa의 'Next Level'을 BGM으로 대선 후보의 캐릭터가 대표 안무인 'ㄷ자 춤'을 추는 것이 SNS상에서 굉장한 화제가 되었다.

대선 후보의 익살스러운 춤과 애니메이션적인 모습들은 선거방송 최초로 대선 후보의 모습들을 3D 모델링하여 3D 모델링 속에 디자인을 더해 완성하였고 재미있는 실사 영상들은 기존의 방식처럼 대역들의 액션을 촬영 후 얼굴을 합성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12. 질주자들 : 청와대로 간다



그림 13. 돌아라 팡팡



그림 14. 손으로 전해요

마치며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집계되는 시청률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동시간대 시청률 비교가 각 방송사 간 순위 경쟁의 척도가 된 지 오래이다. 하지만 최근 선거방송의 경우 SNS상에서의 이슈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며 시청률과는 사뭇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미친 것 같다.’, ‘약 빨고 만드는 거 아니냐?’ 등 감탄 섞인 다소 격한 반응들과 함께 SNS에 실시간으로 캡처되어 게시되는 각종 ‘짤’들은 우리가 제작하고 있는 방송이 얼마나 이슈가 되고 있는지 가장 빠르게 느낄 수 있는 피드백일 것이다.

6개월여 동안 준비한 것들을 약 12시간 동안 라이브로 진행된 선거방송에 모두 쏟아부은 스태프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쉽 없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

